



포콜라레 운동

회장

MPpU 국제 본부 모임 참석자
카스텔간돌포 모임에 참석한 국제 본부

로카디파파, 2016년 6월 24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일치를 위한 정치 운동의 탄생 20주년을 맞는 특별히 의미 있는 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순간은 틀림없이, 평화와 보편적인 형제애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격려가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서로 다른 백성과 문화를 대표하지만, 끼아라 루빅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으로 관상하게 해 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형제애의 꿈으로 인해 하나된, 모든 분들에게 진심 어린 저의 인사를 보냅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태어난 끼아라의 일치의 이상은, 전쟁과 증오와 불의로 인해 조각난 인류를 재 결합시키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자원들을 활용하게 하면서, 즉시 사회적인 차원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 때부터 모든 새로운 분쟁 앞에서 끼아라는 계속해서 복음적 사랑의 논리를, 만남과 대화, 합법적이고 인간의 권리를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것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초래 하는 수 많은 분쟁들 앞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입니다.

우리 운동의 회원들이 “대화의 사도”로 알려졌다면,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그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커다란 도전들 앞에 놓여있는 현재의 정치적 배경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일치를 위한 정치 운동 탄생 20주년 맞아 여러분은 현장에 담겨있는 기본 노선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보편적인 형제애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포콜라레 운동 안에서 여러 학문에 따라 현시대의 문화와의 대화에 힘쓰는 이들과의 협조 안에서 그리고 새인류운동과 일치를 위한 젊은이 운동과의 시너지를 통해 여러분의 “사랑 중의 사랑” 과 같은 정치의 드높은 성소를 증거하고자 하는 노력과 일치된 세계의 꿈이 어느 날엔가 현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며 저의 그리고 저와 사업회 전체의 지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인사 드립니다.

Emmanuel